

『시경(詩經)』의 색상(色相) 연구(研究)

박순철(제1저자)* · 장호철(제2저자)**

-
1. 들어가는 말
 2. 색채(色彩)의 인식(認識)과 원리(原理)
 3. 정간색(正間色)과 흑백색(黑白色)의 비유적 활용(譬喻的活用)
 4. 맺는말
-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시경(詩經)』에 나타난 색상의 비유와 상징을 심층적으로 연구한 내용이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색상의 비유와 상징성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그 원리와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런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분석되어 연구되지 않은 미진한 부분이다. 그 연구 방법은 『시경』 305편의 시 중에서 색상과 관련 있는 내용을 선별하여 분석하는데, 의복과 관련된 시가 가장 많이 분석되었다. 또한 같은 시대의 서책인 삼례(三禮)와 『상서(尙書)』를 참고하여 시의 내용을 심층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시경』의 색상 배색 원리는 전국(戰國) 말기(末期)와 한대(漢代) 초기(初期)에 정립된 음양오행의 배색 원리보다 앞선 것으로 그 선행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구체적 원리는 오색(五色)과 오행(五行)의 관념-정색(正

* 전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 E-mail: unshan@hanmail.net

** 전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 E-mail: zhanghaozhe0515@163.com

色)의 상응배합(相應配合)-정색과 잡색(雜色) 및 정색과 간색(間色)의 귀천(貴賤) 관념-위계질서(位階秩序)의 비유(譬喻) 등이다.

주제어: 詩經, 色相, 陰陽五行, 正色, 間色, 綠衣, 緇衣, 黑白

1. 서론

『시경(詩經)』에는 시경 시대 사람들의 색(色)과 색상(色相)에 대한 관념을 엿볼 수 있는 시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색과 색상의 관념은 비유(譬喻)와 상징(象徵)으로 상용되었다. 이러한 비유는 의복에 반영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시가 패풍(北風)의 「녹의(綠衣)」이다. 이러한 색의 비유와 상징은 기존 연구에서 많이 연구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마왕결(馬玉潔)의 「《詩經》紅白色彩研究」, 담요(譚曉)의 「《詩經》中的“黃”」, 담덕흥(譚德興)의 「試論《詩經》之色彩話語及其文化意蘊」, 이림(李琳)의 「《詩經》中的色彩運用及其文化意蘊」, 서정계(徐正桂)의 「《詩經》色彩的象征意涵」 등이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개별 색채 및 색의 운용과 비유 그리고 문화적 함의까지 논하여 그 가치가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고 미진한 부분을 좀 더 탐구하여 밝히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가 의복과 기타 사물의 색채를 중심으로 색채의 비유와 상징을 표면적으로 연구하였다면, 본 연구는 이러한 비유와 상징이 어떤 원리와 방법에 기초하여 그 비유와 상징성을 지니게 되었는가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시경』 시를 통하여 오색의 관념을 밝히고 오행과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오행은 일반적으로 『상서(尙書)』의 「홍범(洪範)」에 수록된 기자

(箕子)의 오행설(五行說)에서 기원하였다고 여긴다. 그 내용은 오행에 관한 것으로¹⁾ 기자가 은(殷)나라가 멸망하자 동쪽으로 옮겨 와 은거하고 있었을 때 주나라 무왕(武王)이 찾아와서 천도(天道)를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이 오행설은 이후에 여러 가지로 응용되었는데 오행과 오색의 결합도 그 중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오행의 오색 결합은 전국 말기 추연(鄒衍) 등의 음양오행가(陰陽五行家)에 의하여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이상의 설명에서 주목할 점은 기자의 오행설에는 오행과 오색 결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홍범(洪範)」 제32장에 ‘서징(庶徵)’이라는 명칭이 있고 우(雨), 양(陽), 옥(燠), 한(寒), 풍(風)을 서징이라고 하였는데, 채침(蔡沈)이 우는 수(水), 양은 화(火), 옥은 목(木), 한은 금(金), 풍은 토(土)에 속한다고 주석을 하였다.²⁾ 이를 통해 볼 때 「홍범」에서는 아직 오행에 오색을 안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시경』의 「녹의(綠衣)」에는 “녹색의 겹옷에 황색의 속옷이로다. (綠衣黃裏)”라는 시구가 있다. 이 시구에 대하여 주희(朱熹)는 『시집전(詩集傳)]의 주석에서 비유의 수법으로 황색은 중앙의 정색(正色)이고 녹색은 간색(間色)인데 간색의 녹색이 옷옷이 되어 귀한 대접을 받고 정색의 황색은 귀중한 색인데 속옷이 되어 천한 취급을 받았다고 하였다. 주희의 이러한 설명은 오행과 오색을 결합한 오행론에 의거하여 설명한 것으로 시대의 선후가 맞지 않는다.³⁾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경』 시

1) “一五行 一曰水 二曰火 三曰木 四曰金 五曰土 水曰潤下 火曰炎上 木曰曲直 金曰從革 土爰稼穡 潤下作鹹 炎上作苦 曲直作酸 從革作辛 稼穡作甘”(成百曉 譯註, 『書經集傳』 下, 傳統文化研究會, 2001. 56쪽.)

2) “八庶徵 曰雨 曰暘 曰燠 曰寒 曰風 曰時 五者來備 各以其叙 庶草蕃廡”, “雨屬水 暘屬火 燠屬木 寒屬金 風屬土 吳仁傑曰 易 以坎爲水 北方之卦也 又曰 雨以潤之 則雨爲水矣 離爲火 南方之卦也 又曰 日以暘之 則暘爲火矣”(成百曉 譯註, 『書經集傳』 下, 傳統文化研究會, 2001. 75쪽~76쪽.)

3) 주희가 『예기(禮記)·옥조(玉藻)]에 나오는 정색과 간색의 개념을 사용하여 시의

에서 색상을 비유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정지(情志)를 표현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살펴 보고, 그 원리와 방법을 삼례(三禮)의 서적을 참고하여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원리는 한대의 음양오행가(陰陽五行家)에 의하여 정론화된 오행론(五行論)의 오색론(五色論)보다 앞서 있던 내용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이다. 본 논문의 이러한 시도는 지금까지 없었던 작업으로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2. 색채(色彩)의 인식(認識)과 원리(原理)

『시경(詩經)』에는 시경 시대 사람들의 색채의 인식(색각)과 관념을 알 수 있는 시가 적지 않다. 본 장에서는 『시경』 305편을 대상으로 색채의 인식 및 정색과 간색에 대한 관념과 사유 방식을 검토하고 아울러 동시대의 저작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시경』에 나타난 색상의 비유적 표현이 현상적인 측면이라면, 『예기(禮記)』와 『상서(尙書)』의 색상 관련 내용은 원리적 측면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시경』과 두 책의 내용은 표리 관계가 있는 책으로 서로의 내용을 호용(互用)할 때 색상을 활용한 표현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1) 『시경(詩經)』의 색채인식(色彩認識)과 관념(觀念)

『시경(詩經)』에 나타난 색채와 관련 내용을 색채 인식과 정간색 관념 그리고 정색의 분류로 나눠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내용을 설명한 것은 시대의 선후상 문제가 없으나, 설명 과정에서 ‘중앙토(中央土)’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한대의 오행론의 오색과 오행의 배속을 따른 것으로 시대적으로 선후가 맞지 않은 점이 있다. 시경 시대에는 오행과 오색을 긴밀하게 결합하여 사용하지는 않았다. 자세한 설명은 본문의 「녹의」시의 분석에 수록되어 있다.

① 색채인식(色彩認識)

시경 시대의 색채 인식(색각)과 관념은 이전 시대의 색의 인식과 관념을 계승하여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시경』을 통하여 색에 대한 인식과 관념을 추론해 보면, 천상천기물(天象天氣物), 자연경물(自然景物), 염색기술(染色技術)을 통하여 색을 인식하고 관념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천상은 하늘의 일원성(日月星)과 및 번개 등이고 천기는 하늘의 구름과 비, 안개와 이슬, 서리와 무지개 등이다. 자연경물은 산천과 초목의 색채 그리고 토지의 색깔 등이다. 이 중에서 초목의 색채 인식은 특정 나무와 꽃의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감당(甘棠)」에서는 감당꽃의 백색(白)과 홍색(紅)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4) 「도지요요(桃之夭夭)」에서는 붉은 복숭아 꽃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색채의 아름다움을 잘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경 시대에는 통염색 기술이 발명되었는데 앞의 천상 물과 천기 물 그리고 자연경물을 보면서 색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이를 모방하여 재현하고자 하는 요구에서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옷을 만들어 입으며 흙과 숲 그리고 열매와 풀색을 활용한 색의 창조와 재현하는 과정에서 염색기술이 더욱 발달하여 더욱 다양한 색상의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었다.⁵⁾

이러한 색의 인식과 관념은 자신의 정지(情志)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데 활용되었다. 색상이 자신의 정지를 표현하는 데 활용된 대표적인 시는 「채동(蜃蜃)」이다. 채동은 오늘날의 무지개인데 시인이 바로 무지개의 색상을 인지하고 활용하여 자신의 뜻을 표현한 것이다.⁶⁾ 시경 시

4) “甘棠，杜梨也 白者爲棠 赤者爲杜.”(『詩經集傳』上, 56쪽.)

5) 곽렴부와 관연은 “先秦織物染色分石染和草染兩種”라고 하면서 『시경』에 나오는 천초(茜草)와 녹초(莢草)를 인용하여 풀을 활용한 염색 기술이 매우 뛰어났다고 하였다.(郭廉夫·郭淵 著, 『中國色彩簡史』, 重慶大學出版社, 2021. 45쪽.)

6) 원문의 제 1장은 “蜃蜃在東，莫之敢指。女子有行，遠父母兄弟”이다. 주희는 채동에

대 사람들은 무지개를 제외하고도 색을 인식하여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다양한 자연물과 동식물 및 의관(衣冠)과 기물(器物)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태양과 불의 적색, 달과 이슬과 서리 및 양(羊)의 흰색, 초목의 청색, 고양(羔羊)의 흑색, 우마(牛馬)와 호표(虎豹)의 혼합색, 조류(鳥類)의 다양한 색깔이다. 또한 옷을 만든 원료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칙베옷, 삼베옷, 비단옷, 가죽옷이 있는데 염색하지 않은 삼베옷과 비단옷은 흰색 계통이다. 옷의 색깔과 옷을 두른 선과 안감으로 보면, 녹의(綠衣), 치의(緇衣), 고구(羔裘), 경의(褰衣), 금의(錦衣)가 있는데 녹의는 푸른 옷, 치의와 고구는 검은 옷, 경의(褰衣)는 붉은 비단옷이다. 옷을 두른 선의 색깔은 다양하고 안감 또한 다양하였다. 관 또한 소관(素冠), 규변(頰弁), 피변(皮弁) 등으로 색깔이 다양하였다.

② 정간색(正間色)의 관념(觀念)과 분류(分類)

시경 시대 사람들은 색채의 인식을 바탕으로 중요한 색을 선정하여 정색과 간색을 정립하였다. 정색과 간 색의 기원은 우선 기(氣)의 분화 양상(빛의 파장 개념은 없음)을 가시화한 결과이다. 이러한 점은 시경에 나오는 「채동(蜃蜃)」이라는 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채동은 무지개이다. 시경 시대 사람들이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통하여 색상을 인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⁷⁾ 다음으로는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색채의 변화

대하여 “해가 비와 사귀어 갑자기 나타나 혈기와 같으니 음양의 기운이 사귀어서는 안 될 때 사귀는 것이니 천지의 음기이다.”라고 하여 부정적으로 보았다.

- 7) 제임스 폭스는 『컬러의 시간』에서 “눈이 세상의 빛을 등록하고, 정신이 그것을 해석할 때 색이 창조된다.”라고 하면서, 빛의 가시광선을 눈의 광수용체가 수용하여 원뿔세포가 인지하고 다시 전기신호로 바꿔 뇌에 전달하여 해석함으로써 색을 인지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사람이 색을 인식함에 있어서 하늘과 땅에서 빛나는 색채를 먼저 인식하여 알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색채의 인식은 먼저 천상물과 천기물에서 강렬하게 느꼈을 것이다.

인식에서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계절에 따라 색채가 달라지는 것을 인식한 것인데 봄에는 청색 계열, 여름에는 적색, 가을에는 백색, 겨울에는 흑색을 대표색으로 삼았다. 이러한 인식은 인간이 자연 질서의 변화에 상응하여 동조 현상으로 천지의 기운(氣)의 변화를 체득하여 재현하고자 한 것이다. 셋째는 물질적, 기술적 원인이다. 초기 염색 기술에서 안정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색이 제한되었지만, 청(靑), 적(朱砂·적토), 황(黃토), 흑(棼), 백(표백된 섬유)은 재현 가능성이 좋은 색이었다. 정색은 물질적인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 선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는 정색의 개념이 정립되었다. 『상서(尙書)·익직(益稷)』에 “오채를 오색에 배풀어 배합한다.”⁸⁾라는 말이 있고, 『예기(禮記)·옥조(玉藻)』에는 “정색으로 옷을 만들고 간 색으로 치마를 만든다.”⁹⁾라는 기록이 있으며, 『예기(禮記)·고공기(考工記)』에는 “동방을 청(靑)이라 부르고, 남방을 적(赤)이라 부르고 서방을 백(白)이라고 부르고 북방을 흑(黑)이라고 부르고 땅을 황(黃)이라고 부른다.”¹⁰⁾라는 기재가 있다.¹¹⁾ 두 책이 시경과 비슷한 시기의 책이므로 시경 시대에 이미 정색과 간색에 대한 개념이 있고 이를 활용하여 시경에서는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데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는 정색이 『상서』에서 오행과 연결되어 설명되기 시작하였다. 오행의 개념은 『상서(尙書)』의 「대우모(大禹謨)」¹²⁾·「감서(甘誓)」¹³⁾·

8) “以五彩施於五色”

9) “衣正色，裳間色”

10) “東方謂之靑，南方謂之赤，西方謂之白，北方謂之黑，地謂之黃”

11) 광림부와 광연은 공통으로 지작한 『중국색채간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오색시의도(五色示意圖)’와 ‘방위시의도(方位示意圖)’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오색과 방오위를 결합하여 동방은 청색, 남방은 적색, 중앙은 황색, 서방은 백색, 북방은 흑색으로 배치하여 표시하였다.(郭廉夫·郭淵 著, 『中國色彩簡史』, 重慶大學出版社, 2021. 57쪽.)

12) “德惟善政，政在養民，水火金木土穀，惟修。”

「홍범(洪範)」에 나오는 데 이 중에서 「홍범(洪範)」에는 수·화·목·금·토(水火木金土)가 나오는데 상극(相克)의 순서이다.¹⁴⁾ 수는 적심과 내려움(潤下)이고 화는 불타고 올라감(炎上)이고 목은 굽음과 펴짐(曲直)이고 금은 따름과 바꿈(從革)이고 토는 심음과 거둠(爰稼穡)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오행의 성질에 대하여 기초적인 설명이지만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순서는 문왕 팔괘의 생수(生數)의 자연적인 순서와 같다.¹⁵⁾ 또한 「홍범(洪範)」에는 서징(庶徵)이라는 명칭이 있다. 서징은 우(雨)·양(暘)·옥(燠)·한(寒)·풍(風)·시(時)이다. 채침(蔡沉)은 주석에서 비는 수(水)에 속하고 양은 화(火)에 속하고 옥은 목(木)에 속하고 한은 금(金)에 속하고 풍은 토(土)에 속한다.(雨屬水, 暘屬火, 燠屬木, 寒屬金, 風屬土)라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수는 비가 내려 아래로 흘러가 어두우니 흑색이고 화는 타 올라 빛나니 적색이고 목은 따듯한 봄날에 꾸불거리며 곧게 자라니 청색이고 금은 얼음처럼 차가워서 그 성질이 바뀌니 흰색이고 토는 황토에 바람이 불어 곡식에 자라 거두니 황색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상서』에는 오행의 명칭과 성질 그리고 그에 따른 색상은 유추할 수 있으나 아직은 오행과 오색의 방위와 배정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시경 시대에는 다양한 색채를 인식하여 정색과 간색의 개념을 형성하여 확립하고 정색과 방위를 연결하여 방위에 따라 색을 배치하는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참조하여 『시경』에 표현된 색상

13) “有扈氏，威侮五行，怠棄三正。”

14) 오행의 순서에 대하여 서복관은 실용적인 생활 자료로서의 오행일 뿐 후세의 음양 오행설에서의 그 오행괘의 의미는 다르다하고 하였고, 니덤은 수·화·목·금·토의 순서나열은 오행의 태어난 순서로 보았고 기원전 3세기에 수용된 것으로 보았다.

15) 문왕 팔괘는 북방은 1과 수이고 남방은 2와 화이고 동방은 3과 목이고 서방은 4와 금이고 중앙은 5와 토로 되어 있다. 1에서 5는 생수이고 수에서 토는 상극의 대칭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의 토가 중간에서 중화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을 오정색(五正色)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청색(靑色): 녹의(綠衣, 邶風), 기옥(淇奧, 鄘風), 자금(子衿, 鄭風), 상청청자화(菁菁者莪, 白華)
- (2) 적색(赤色): 도지요요(桃之夭夭, 周南), 하피농의(何彼穠矣, 召南), 원유도(園有桃, 魏風), 동궁(彤弓, 彤弓)
- (3) 황색(黃色): 탁혜(蓀兮, 鄭風), 황조(黃鳥, 秦風, 祈父), 하초불황(何草不黃, 都人士)
- (4) 백색(白色): 행로(行露, 召南), 겸가(蒹葭, 秦風), 소관(素冠, 檜風) 백구(白駒, 祈父), 담로(湛露, 白華), 백화(白華, 都人士), 행위(行葦, 生民)
- (5) 흑색(黑色): 치의(緇衣, 정풍), 고구(羔裘, 鄭風, 唐風, 檜風), 연연(燕燕, 燕燕, 邶風), 현조(玄鳥, 商頌)

상기의 분류에서는 정색을 대표하는 시구를 선정하여 분류하였고 간색은 선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경』에는 정색을 제외하고 간색 계통의 색상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간색은 다음 장에서 시를 분석할 때 언급하고자 한다.

2) 『예기(禮記)』의 색상원리(色相原理)

윗장에서 시경 시대에는 색채를 다양하게 인식하여 시적 표현으로 활용하고 『상서』와 『예기』의 내용을 인용하여 정색과 간색 그리고 오색과 오방위의 배합 관념이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이 중에서 삼례 중에서 『예기』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예기』를 살펴보면, 첫째, 정색(正色)과 간색(間色)의 위계 개념이 있다.¹⁶⁾ 정색은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대표색이고 간색은 정색의 혼합으로 파생된 색이다. 정색은 순수하고 바른 ‘근본 상태’를 의미하고, 간색은 두 기운이 섞인 파생의 변화의 색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이 점차 정치적·윤리적으로 구획되어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었다. 특정 색이 지위를 표시하여 천자는 황색을 주로 사용했고 그 아래로 내려갈수록 혼합된 색을 사용한 것이다. 둘째, 상생·상극의 동적 원리의 개념이 적용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상서』의 오행설이 『예기』에도 반영되어 나타나 있다. 『예기』에는 색을 고정하여 배치한 것이 아니라, 서로 생성하고 제약하는 관계 속에서 배열되었다. 예를 들면, 상생 관계의 순서로 목→화→토→금→수의 관계를 강조하였고, 상극 관계는 그 반대의 제어 관계를 강조하였다. 이로 인하여 복식설(服飾說)에서 ‘상의(上衣)는 생(生)하는 색, 하상(下裳)은 극(克)당하는 색을 배합하여 상극 원리를 상의하상(上衣下裳)에 적용하여 상호 관계를 질서라는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정리하면, 의복의 색상 배합은 정색과 간색 및 상생상극의 원리에 따라 제도화되었다. 다음으로 『예기』에는 의복의 종류가 서술되어 있다.

『예기(禮記)』에서 의복의 ‘종류’는 단순한 복식 분류가 아니라, 신분·의례·신체 구조를 매개로 한 질서의 표현 방식이다. 첫째, 상의(上衣)와 하상(下裳)의 분리와 결합이다. 고대 의복의 기본 형식은 상의(上衣)와 하상(下裳)의 분리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예기(禮記)·심의(深衣)』에서는 심의(深衣)를 강조하여 이 둘의 연결을 강조하였다. 이 연결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하늘(상)과 땅(하)을 한 몸에 통합한다는 상

16) 『禮記』『玉藻』에 “衣正色, 裳間色”라는 말이 있다.(權五惇 譯解, 『禮記』, 홍신문화사, 1991. 288쪽)

징적 장치였다. 따라서 의복의 종류는 먼저 상하 분리형(衣裳)과 상하 통합형(深衣)의 이중 구조였다. 둘째, 예(禮)의 등급에 따른 제복(祭服) 체계인데 면복(冕服)을 중심으로 한 분화이다. 이는 천자-경(제후)-대부-사로 이어지는 위계질서를 시각적으로 배열한 것이다. 면복은 단순히 한 종류의 옷이 아니라, 면관(冕)과 상의(上衣)·하상(下裳), 폐슬(蔽膝), 혁대(帶), 패옥(佩玉) 등이 결합 된 복합 인구 성이다. 이 안에서 문양, 색, 장식의 수량이 달라지면 동일 형식 내부에서도 다시 위계가 세분되어 표시된다. 즉, 의복의 차별이 서로 다른 옷이 아니라 같은 의복에서도 차등적으로 표현되었다. 셋째, 의례 상황에 따른 변별과 구분이다. 『예기』에서는 길례(吉禮, 제사), 흉례(凶禮, 상례), 군례(軍禮), 빈례(賓禮) 등에 따라 착용하는 의복이 달랐다. 특히 상례에서는 거친 삼베로 만든 상복(喪服)이 강조되었는데, 중요한 점은 슬픔의 정도를 의복의 상태로 표현한 것이다. 참취(斬衰), 자취(齊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로 이어지는 구분은 옷의 종류이면서 동시에 친족 관계와 애도의 깊이를 정량화하여 표시한 것이다. 상호 간의 친소 관계를 알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정색과 간 색의 구분, 상하 의복의 분리와 통합(衣裳과 深衣), 면복의 위계적 구분(冕服의 變形), 제복(祭服)의 친소에 따른 구별(상복 체계)인데 그 원리는 단순한 분류가 정치와 사회 질서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예기』의 색상 배합에서 기본 원리는 정색(正色), 간색(間色), 사계절(四季節) 및 오색과 오방위(五方位)의 대응과 배속이다. 오색(五色)의 청(靑)·적(赤)·황(黃)·백(白)·흑(黑)을 봄, 여름, 장하(長夏, 土), 가을, 겨울의 사계절과 오방위에 대응시켜 배속하는 것이다.¹⁷⁾ 응

17) 『禮記』「月令」에는 “孟春之月 日在營室 昏參中 旦尾中 其日甲乙 其帝太皞 其神句芒 其蟲鱗 其音角 律中太簇 其數八 其味酸 其臭羶 其祀戶 祭先脾 東風解冰 蟄蟲始振 魚

용 원리는 색상을 정색(正色)과 간색(間色) 및 상하(上下)와 내외(內外), 길흉(吉凶)의 구분하는 것이다. 간색은 정색을 혼합하여 만드는데 정색을 높게 간색은 낮게 여겼다. 상하의 구분은 상의하상(上衣下裳)으로 정한 뒤 상의와 하상의 색을 다르게 하여 조화와 위계를 표시하였다. 내외 구분은 옷의 겉옷과 속옷의 색상의 배합을 통하여 조화와 위계를 표시하였다. 길흉은 길복(吉服)과 흉복(凶服)을 구분하고 그 색상을 달리하는 것이다. 흉복은 상복이 대표적인데 그 색상은 흰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흰색이 가을의 색상으로 쇠락(衰落), 수렴(收斂), 종결(終結)을 상징하였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예는 「옥조(玉藻)」, 「월령(月令)」, 「단궁(檀弓)」 등의 편에서 엿볼 수 있다. 「월령」에서는 계절별로 천자가 착용해야 할 의복의 색상이 규정되었는데, 봄에는 청색 계절의 옷과 청옥(靑玉)을, 여름에는 적색, 중앙의 장하(長夏)에는 황색, 가을에는 백색, 겨울에는 흑색을 옷을 입어서 사계절의 기운에 순응하여 활력을 취하였다. 「옥조」에서는 정색(正色)과 간색(間色)으로 절제와 조화를 통하여 위계질서를 표현하였다. 이에 따라 천자나 제후와 같은 최고 권력자는 정색의 옷을 주로 입었고 사(士) 이하 계층은 간색의 옷을 주로 입어서 각각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표시하였다. 상의와 하상의 구분은 우선 상의(衣)는 하늘, 하의(裳)는 땅을 상징하고 그 색 또한 천지를 상징한다. 상의는 밝고 상승적인 색, 하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중후한 색을 취하였다. 이는

上水 獺祭魚 鴻雁來”라는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을 오행(五行)은 목(木), 계절(季節)은 춘(春), 십간(十干)은 갑을(甲乙), 오충(五蟲)은 린(鱗), 음(音)은 각(角), 오미(五味)는 산(酸), 오취(五臭)는 전(膻), 오사(五祀)는 호(戶), 오장(五臟)은 비(脾)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갑을은 오행으로 따질 때 목(木)에 해당하기 때문에 봄을 오행에서 목(木)에 소속시킨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예기』에는 오행, 계절, 오색, 오미를 결합하여 이해하고 사유는 체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權五惇 譯解, 『禮記』, 홍신문화사, 1991. 134쪽~137쪽)

‘상하 분별’이라는 윤리-우주론적 원리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이러한 배합 원리는 단순한 색의 조화가 아니라, 존재론적 위계를 옷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색상 배합의 기본과 응용 원리는 우주와 자연의 사계절의 기운을 취하고 위계질서를 구분하고자 한 것이다. 총결하면, 『예기』에 나타난 의상의 색상 배합은 첫째, 사계절(四季節)-오색(五色)-정치 위계질서(位階秩序)의 상하 구조, 둘째, 정색(正色)과 간색(間色)의 위계적 구분, 셋째, 상의하상(上衣下裳)의 천지 대응과 구별, 넷째, 길흉(吉凶)에 따른 색채 전환으로 길복(吉卜)과 흉복(凶服)을 흑백(黑白)으로 구분한 것이다.

3. 정간색(正間色)과 흑백색(黑白色)의 비유적 활용(譬喻的活用)

1) 정간색(正間色)의 비유적 활용(譬喻的活用)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참조하여 『시경』에서 정색과 간색의 관념을 가지고 자신의 정지(情志)를 표현한 대표적인 시를 살펴보면 패풍(邶風)의 「녹의(綠衣)」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綠兮衣兮	녹색 저고리 옷이여
綠衣黃裏	녹색 저고리에 황색이 안감이로다
心之憂矣	마음의 근심함이여
曷維其已	언제나 그칠까

綠兮衣兮	녹색 저고리 옷이여
綠衣黃裳	녹색 저고리에 황색이 치마로다

心之憂矣 마음의 근심이여
 曷維其亡 언제나 잊을 수 있을까
 〈北風, 綠衣〉 제1, 2장

제1, 2구에 대한 역대 주석가들의 견해는 서로 다르다. 우선 녹자(綠字)에 대한 주석이 다르다. 녹자를 원문대로 해석하는 경우와 녹자를 단자(祿字)로 여기고 해석하는 경우이다. 모형(毛亨)과 모장(毛萇)은 『모전(毛傳)』에서 시지(詩旨)는 “녹의는 위나라 장강(莊姜)이 자신의 신세를 상심한 시이다. 첩이 윗사람을 참람하여 부인이 자리를 잃고 이 시를 지었다.”¹⁸⁾라고 하고, 제1장 주석에서는 “녹색은 간색이고 황색은 정색이다.”¹⁹⁾라고 하였다. 이는 황색은 정색²⁰⁾으로 겉옷의 색깔이 되어야 하고 녹색은 간색²¹⁾으로 안감이 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되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정현(鄭玄)은 『모시정전(毛詩鄭箋)』에서 “녹색 저고리 옷이라

18) “綠衣 衛莊姜傷已也라 妾上僭 夫人失位 而作是詩也”(『毛詩傳』)

19) “綠間色, 黃正色”(『毛詩傳』)

20) 오행에서 정색은 청(靑)·적(赤)·황(黃)·백(白)·흑(黑)이다.

21) 간색을 살펴보면, 동방의 간색은 녹색(청과 황의 혼합), 남방의 간색은 홍색(적색과 백색의 혼합), 중앙의 간색은 류황(驪黃)(황색과 흑색의 혼합), 서방의 간색은 벽색(碧色)(백색과 청색의 혼합), 북방의 간색은 자색(紫色)(흑색과 적색의 혼합)이다. 간색은 오행의 상극(相克) 관계에서 만들어진 다. 목(木)은 토(土)를 극하고, 토는 수(水)를, 수는 화(火)를, 화는 금(金)을, 금은 목을 극한다. 정색이 동서남북과 중앙에서 계절과 오행을 표시하지만 간색은 그 사이에 자리하고 있어서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이로 인하여 군왕의 제복이나 제사용 기물에는 정색을 사용하고 간색은 상대적으로 일상적이거나 하위 영역에 배치되었다. 정색과 간색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정치적으로 보면 정색은 권력의 독점 언어이고, 간색은 그 바깥에서 확산되는 실천적 색채다. 예컨대 황색은 황제의 것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다양한 황색 계열의 간색이 널리 쓰인다. 둘째, 미학적으로 보면 정색은 명확하고 단호한 대비를 만들지만, 간색은 그 사이에서 미묘한 감각과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당·송 이후 회화와 직물에서 자색·녹색 계열이 발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셋째, 인식론적으로 보면 정색은 분류와 규범의 산물이고, 간색은 연속성과 변화의 표지다.

이니 모두 흰 비단으로 안감을 대는데 지금의 단의는 오히려 황색으로 안감을 뒀으니 알맞은 예법이 아니다. 그리하여 첩이 위로 참람함을 비유한 것이다.”²²⁾라고 하였다. 정현은 녹자를 단자로 보고 단의(袞衣)로 해석하였다. 단의는 제복(祭服)인데 제후의 첩이 입는 제복이다. 제후는 부인과 첩이 있는데 그들이 입는 제복은 서로 다르다. 제후 부인은 제복으로 휘의(褱衣; 현색(玄色) 바탕에 오채(五彩) 적문(赤文)), 유적(揄狄; 청색 바탕에 적문), 궐적(闕狄; 적색 바탕에 단순화된 적문)이 있다. 첩들도 등급에 따라 입는 제복이 서로 다른데 그 순서는 국의(鞠衣), 전의(展衣), 단의(袞衣)이다. 국의는 황색이고 전의는 흰색이고 단의는 흑색인데 모두 흰 비단으로 안감을 한다.²³⁾ 정현은 이러한 예법에 근거하여 단의를 입는 신분이 가장 낮은 첩이 안감을 황색으로 하였기 때문에 황색의 국의를 입는 첩을 참람하게 침범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현은 제복을 입은 과정에서 신분이 가장 낮은 첩이 상위 등급의 첩을 침범하여 예법을 어긴 것을 비유한 것으로 본 것이다.

공영달(孔穎達)은 『모시정의소(毛詩正義)』 소(疏)소에서 모형설(모형설)을 부연하여 설명하고 나서 “녹색 옷이 순색이 아니면서 정색을 침범한 것이이 첩이 천한 사람으로서 귀한 이를 능멸한 것과 같은 것이다. 부인이 소외를 당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한 것이니, 어느 때 그칠 수 있겠는가.”²⁴⁾라고 하였다. 공영달의 해석은 모시설을 따라 추가적으로

22) “祿兮衣兮者 言祿衣自有禮制…祿衣黑 皆以素紗爲裏 今祿衣反以黃爲裏 非其禮制也 故以喻妾上僭”(『譯主 毛詩正義2, 124쪽~125쪽)

23) 이렇게 차등을 정하는 것은 오행(五行)에 따른 것이다. 황색은 토, 백색은 금, 흑색은 수로 상생의 관계로 순서가 정해진 것이다. 또한 공간적 위치와 깊이에 따라 황(外·中心·궁적) → 백(중간·매개) → 흑(내부·은폐) 등으로 정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하면,윗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살게 한다는 뜻이 내재되어 있다.

24) “綠衣以邪干正 猶妾以賤陵貴 夫人既見疏遠 故心之憂矣 何時其可以止也”(『譯主 毛詩正義2, 1264쪽)

설명을 한 것으로 정현과는 그 취지가 다르다. 정현은 예복의 규정을 가지고 첩들 간의 참람함을 비유했다고 본 반면, 공영달은 정색과 간색의 개념을 가지고 정실과 첩간의 참람함을 비유했던 것으로 보았다.

송대의 주희는 『시집전(詩集傳)』에서 제1장 주석에서는 “비(比)이다. 녹(綠)은 창색(蒼色)이 황색(黃色)을 이긴 중간색(中間色)이요, 황(黃)은 중앙토(中央土)의 정색(正色)이다. 간색(間色)은 천한데 이것으로 상의를 만들고, 정색(正色)은 귀한데 이것으로 속옷을 만들었으니, 이는 모두 제자리를 잃었음을 말한 것이다.”²⁵⁾라고 하였고, 제2장 주석에서는 “비(比)이다. 옷옷을 의(衣)라 하고, 아래옷을 상(裳)이라 한다. 『예기(禮記)』의 <옥조(玉藻)>에 ‘의(衣)는 정색(正色)으로 하고 상(裳)은 간색(間色)으로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제 녹색으로 의(衣)를 만들고, 황색은 속옷에서 더 전락하여 상(裳)이 되었으니, 제자리를 잃음이 더욱 심한 것이다.”²⁶⁾라고 하였다. 주희의 설명은 모시설과 공영달의 설을 따른 것으로 정색과 간색을 바탕으로 겉옷과 속옷 및 상의와 하상의 색상 배치가 잘못된 것으로 정실과 첩의 관계가 잘못된 것을 비유했던 것으로 본 것이다.

현대의 시경 학자로 등지신(滕志賢)은 『시경독본(詩經讀本)』에서 “이 시는 남편이 죽은 아내를 추념하며 그리워한 것이다. 「모시서」에서는 위나라 장강(莊姜)이 자신의 신세를 상심한 시라고 여겼는데 그러나 시 중에는 그러한 증거가 없다. …1장과 2장은 녹의를 보고 끊임없는 근심과 그리움을 일어났음을 서술하였다.”²⁷⁾라고 하였다. 등지신은 『모시

25) “比也 綠 蒼勝黃之間色 黃 中央土之正色 間色 賤而以爲衣 正色 貴而以爲裏 言皆失其所也”(『詩經集傳』, 77쪽)

26) “比也 上曰衣下曰裳 記曰 衣正色 裳間色 今以綠爲衣 而黃者自裏轉而爲裳 其失所益矣”(『詩經集傳』, 77쪽)

27) “此蓋丈夫追思亡妻之詩. 『詩序』以爲衛莊姜傷己之詩, 然詩中未見其證. …一, 二章抒寫因睹見綠衣而引起無盡憂思.”(『詩經讀本』, 67쪽)

전』의 설명과 이전 주석가의 모든 설을 취하지 않고 시의 내용만을 가지고 시의 내용에 의거하여 해석을 하였다.

이상의 설을 종합해 보면, 현대 시경 학자를 제외하고 모두 정색과 간색 관념과 『예기』의 예제에 의한 예복을 근거로 해석한 것이다. 『모전』은 또한 『춘추전(春秋傳)』을 근거로 하여 역사적 사실을 인용하여 시의 주인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모시와 주희의 주석은 정색과 간색의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지만²⁸⁾ 주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행설까지 참조하여 설명하였다. 오행설이 전국시대 말기에서 한나라 초기에 이론화되기 시작하여 추연(鄒淵)을 거쳐 동중서(董仲舒)에 의하여 완성된 점을 고려하면, 시가 지어진 이후의 이론으로 그 이전에 지어진 시를 해석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현의 관점은 『모전』과 주희와는 다르다. 정현의 주석은 『주례·천관』을 인용한 설명한 것이다. 그 취지는 제후의 첩이 예제를 어겨서 참람한 짓을 했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장 낮은 신분의 첩이 윗자리의 첩을 침범했다는 것이다. 정현의 관점은 바로 이러한 예제의 규칙을 어긴 점을 가지고 시의 내용을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정현은 이 시를 쓴 시인이 이러한 예제²⁹⁾를 활용

28) 주희가 정색과 간색의 관계로 시의 내용을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오행의 상생 관계로 보면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녹색과 황색의 관계는 오행상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의 연쇄 속에서 녹색(목)은 직접적으로 황색(토)을 낳지 않는다. 그러나 화(火)를 매개로 한 간접 생성 구조를 갖는다. 이는 색채 변환으로 치환하면, 녹색 계열이 점차 온기를 획득하며 황색으로 이행하는 과정—스펙트럼의 가시광선상에서 파장이 짧은 쪽(녹)에서 긴 쪽(황)으로 이동하는 연속성—과 대응된다. 스펙트럼의 가시광선상에서 녹색과 황색은 인접한 파장대(대략 495~570nm 범위) 안에 위치하며, 녹색에 적색 성분이 가미될 때 황색이 형성된다. 이는 고 '청이 변하여 황으로 간다'는 관념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이다. 따라서 녹색의 겉옷에 황색의 안감을 입은 것은 옷차림의 차원에서는 잘 어울리게 옷을 입었다고 할 수 있다.

29) 고대 의복 색상은 첫째, 서주 이래의 예제 속에서 형성된 의례별·신분별 색 사용 규정. 둘째, 상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관계의 깊이를 색의 질감과 농도로 표현하는 체계. 셋째, 전국-한대에 이르러 오행 사상과 결합하면서 등장하는 왕조 단위의 색 독점과 재배치이다.

하여 시를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본 것이다. 『시경독본(詩經讀本)』의 해석은 이전의 모든 주석을 배제하고 시에 나아가 시의를 취하는 해석방법(就詩論詩)을 취하여 녹색³⁰⁾ 옷에 황색 안감을 댄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며 끝없는 근심을 표현한 시로 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옷의 색상은 아무런 함축적 의미를 내포하지 않아서 비유적인 표현이 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녹의』시는 시경 시대에 아직 오행론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색과 간색에 대한 인지와 관념이 있는 후,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의복제도를 만들어 신분의 차등을 표시한 제도가 있었는데, 시인이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여 시구를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현의 관점이 시경 시대의 문화와 사상적 배경을 고려할 때 좀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색상의 관념이 누적되어 한대의 오행론 정립에 기초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시경 시대에는 색상이 의복의 중요한 요소였고 그 색상의 선택과 조합은 오행론보다 본능적인 색채 인식과 오색의 정립과 중시 그리고 정색과 간색의 구별을 통하여 예복 제도를 만들어 신분의 차등을 구분하여 나타냈다는 것이다. 정현의 설을 중심으로 색상의 배합을 살펴보면, 단의는 검은색 겹옷에 흰 안감을 댄 것으로 그 색상의 관계는 흑-백의 관계이다. 이 흑백의 관계를 무슨 원리를 적용하여 어떻게 배합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시경 시대에 사계절-오색-오방위의 개념이 있었다고 할 경우, 그 배합은 오색 간의 관계로 상반 색의 대비이다. 이러한 대비를 오행의 상생상극으로 설명하면 상극 관계의 조화이고 오늘날 색상의 개념으로 보면 보색 관계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경 시대 사람들은 색의 상반의 결

30) 『예기·월령』에는 계절에 따른 색이 규정되어 있는데 봄의 색이 청으로 규정되어 목기(木氣)의 발현으로 여겼다. 이 청은 오늘날의 순수한 그린(green)이라기보다 청·녹이 혼재된 스펙트럼상의 색이다. 다시 말하면 녹색은 청의 내부에서 분화된 상태의 색이다.

함을 통하여 조화를 모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위풍(衛風)의 「석인(碩人)」의 “의금경의(衣錦褰衣)”과 정풍(鄭風)의 「봉(丰)」의 “의금경의, 상금경상(衣錦褰衣, 裳錦褰裳)”에서도 「녹의」와 같은 색상의 배합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그 뜻은 “비단옷을 입고 홑옷을 걸쳤다.”라는 뜻이다. 비단옷은 오색의 문채가 화려한 옷이고 홑옷은 세갈포(細葛布, 細麻布)로 만든 흰색 계통의 얇은 옷이다. 화려한 옷의 무늬 광채가 밖으로 너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린 것이다. 자신의 재주와 공덕이 너무 드러나지 않게 가려서 겸손해 하는 것을 비유하였다. 그런데 비단옷은 오색을 조합한 옷도 있지만 녹색의 비단옷과 황색의 비단옷이 주로 있었다. 시구의 내용과 오행으로 추측하면 본 시구에서 비단옷의 색은 녹색 계통의 비단옷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녹색은 간색(청과 황이 혼합된 색)으로, 목과 토 사이의 중간이다. 생장(木)의 기운이 중앙(土)의 영향을 받아 조율된 상태를 상징하지만 목(木)에 속하는 색이다.³¹⁾ 홑옷은 흰색으로 오행 상금에 속한다. 따라서 오행 상으로 추론하면, 목-금의 상극 관계로 금이 목을 극(克)하는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로 근거로 하면 녹색의 화려한 비단옷을 흰색의 겹옷으로 가려 화려함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즉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가려서 겸손함을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비유적 표현이다. 경의의 또 다른 특징은 심의(深衣) 형태의 옷이라는 것이다. 그 특징은 상의와 하의를 분리하지 않고 연결하는 것으로 인간 존재가 하늘과 땅을 매개한다는 상징이 있다. 즉 비단옷이 상하로 분리된 것을 경의가 연결하여 분리와 연결의 ‘질서화된 공간’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31) 녹색이 목에 더 속하는 이유는 염색의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녹색 비단은 먼저 청색 계열로 염색한 뒤 황색 염료를 덧입히는 방식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녹색이 기저를 이루고 있다.

2) 흑백색(黑白色)의 비유적 활용(譬喻的活用)

흑백의 비유적 활용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시는 「치의」, 3편의 「고구」, 「소관」 등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치의

『시경』에는 흑백색 유관한 시가 있는데 검은색과 관련 시로는 치의(緇衣, 정풍), 고구(羔裘, 鄭風, 唐風, 檜風) 3편, 연연(燕燕, 燕燕, 邶風), 현조(玄鳥, 商頌) 등이 있다. 흑백색이 옷의 색상으로 등장하고 비유적 의미가 있는 시로 「치의(緇衣)」와 「고구(羔裘)」가 있다.

緇衣之宜兮	검은 옷의 어울림이여
敝予又改爲兮	해지면 내가 또 만들어 드리리라
適子之館兮	당신의 관사에 가게 되므로
還予授子之粲兮	돌아와 내가 당신에게 밥을 드리리라
〈鄭風, 緇衣〉 제1장	

모전(毛傳)에서는 이 시의 시지(詩旨)에 대하여 “치의(緇衣)는 무공(武公)을 찬미한 시(詩)이다. 부자(父子)가 모두 주(周)나라의 사도(司徒, 토지와 교화 담당)가 되어 그 직책을 잘 수행하니, 국민(國人)이 이를 마땅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 덕(德)을 찬미하여 나라를 소유하고 좋은 직책을 잘 닦은 공(功)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³²⁾라고 하면서, “치(緇)는 흑색(黑色)이니, 치의(緇衣)는 경대부(卿大夫)가 사조(私朝)에 거처할 때 입는 의복이다.”³³⁾ 라고 주석을 하였다. 정현의 『모시정

32) “緇衣 美武公也 父子並爲周司徒 善於其職 國人宜之 故美其德 以明有國善善之功焉”

33) “緇 黑色 卿士聽朝之正服也.”

전』에서는 “치의는 경대부가 자신의 조정에 거처했을 때 입는 의복이다. 천자를 조회할 때 입는 옷은 피변복이다.”³⁴⁾라고 하였고, 주희는 『시집 전』에서 “치(緇)는 흑색(黑色)이니, 치의(緇衣)는 경대부(卿大夫)가 사조(私朝)에 거처할 때 입는 의복이다...구설(舊說)에 “정(鄭)나라 환공(桓公)과 무공(武公)이 서로 연이어 주(周)나라의 사도(司徒)가 되어서 그 직책을 잘 수행하니, 주(周)나라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였으므로 이 시(詩)를 지었다.”라고 하였다.

3개 설의 공통점은 치의가 흑색 옷으로 경대부가 자신의 조정에서 입는 옷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치의는 ‘검게 물들인 베옷(布)’이다. 이 색은 자연 흑색이 아니라 염색된 흑색이다. 이 옷은 천자의 경사(卿士)가 입는 옷이다. 특히 제후가 천자의 수도로 와서 경사가 된 경우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자신의 사적인 조정에서 입는 옷이다. 이 때문에 치의는 그의 공적 예복인 피변복(皮弁服)³⁵⁾과 구별되어 사적 조정에서 입는 옷

34) “緇衣者 居私朝之服也 天子之朝服 皮弁服也...舊說 鄭桓公武公 相繼爲周司徒 善於其職 周人愛之 故作是詩”

35) 피변복은 옷과 관이 한쌍을 이루는 구조이다. 옷은 비단옷이고 관은 짐승 가죽이다. 가죽은 흑색(黑)의 양(羊) 가죽, 백색(白)의 사슴(鹿) 가죽, 황색(黃)의 여우(狐) 가죽인데 옷색과 관색이 같아야 했다. 옷(布帛)과 관의 면과 가죽으로 나누고 색으로 맞춰지는 것은 단순한 통일성이 아니라, 인공과 자연, 상하의 본질적 합치를 상징한다. 제후로 경대부가 된 자는 이 옷을 입고 천자를 알현하여 천자에게 자연적이고 순수한 충성을 한다는 뜻을 표하였다. 반면에 천자는 경대부의 조회를 받을 때 면복(冕服)을 입었다. 면복(冕服)은 상현하훈(上玄下纁)의 구조이다. 즉, 윗옷은 현색(玄色, 짙은 검정 혹은 청흑색), 아래 옷은 훈색(纁色, 적색에 가까운 붉은색)으로 구성된다. 이 배치는 단순한 미적 대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질서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엄격히 고정된 우주론적 색채 질서를 따른다. 이 점에서 면복은 가변적 의례복인 피변복과 구조적으로 대조된다. 색(玄色)은 오행으로는 수(水), 방위로는 북(北)에 대응한다. 따라서 상의가 현색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늘의 질서를 몸 위에 엮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반면 훈색은 지(地)를 상징한다. 훈은 적(赤)에 가까운 색으로, 오행의 화(火)와 연결되면서도 실제 제도에서는 토(土)의 중화적 의미와 결합하여 생성·양육의 기반으로서의 대지를 표상한다. 하의가 훈색인 것은 인간이 땅 위에 서 있음을 드러내는 구조이다. 또한 면복은 색채뿐 아니라 십이장문(十二章紋)이 배치되는데, 일(日), 월(月), 성신(星辰), 산(山), 용(龍), 화충(華蟲) 등은 각각 하늘·자연·왕권의 질서를 상징하였다.

이다. 시의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옷을 입고 있는 경대부를 사모하여 그 옷이 헤어지면 또다시 만들어 주겠다고 사모와 존경을 표하고 있다. 그를 존경하게 된 것은 위의 주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가 주나라 천자의 경대부(사공)가 되어 충성스럽고 유능하여 국정을 잘 보살피고 사적인 자기의 조정에서는 치의를 입고 겸손하고 절제하여 인품이 어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치의는 현명한 사람을 상징하게 되었다. 『예기』에도 1편의 「치의(緇衣)」³⁶⁾라는 편명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현인을 좋아하기를 치의처럼 하라고 하였고, 또 치의에서 현인을 좋아하는 지극함을 본다고 말하였다.”³⁷⁾라고 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시의 내용과 주석을 근거로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경대부가 사적인 자신의 공간에서 왜 흑색의 치의를 입었는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오색과 오행의 관념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흑색은 정색의 하나로 방향으로는 북(北), 계절로는 겨울, 시간으로는 폐장(閉藏)의 국면을 표상한다. 이는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만물이 외현적 작용을 멈추고 내부로 응축되는 잠재성의 상태이다.³⁸⁾ 흑색은 3원색을 합친 색이고 모든 색을 합치면 흑색이 된다. 염색 기술의 측면에서도 쉽게 만들어 염

36) 「치의」편은 주로 군자의 행동거지, 신하의 자세, 군주의 덕을 설명하여 기록하고 있다.

37) “好賢如緇衣，又曰於緇衣，見好賢之至”(『禮記集說大全』，11쪽)

38) 『예기(禮記)』의 체계 안에서 흑색(黑色)은 단순한 색채가 아니라, 우주론·예제·정치질서가 결합된 상징으로 기능한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오행적 대응, 제복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예기』 「월령(月令)」 및 관련 편목에서 색채는 오행 질서와 결부되며, 흑색은 수(水)에 대응하고 북방·겨울·폐장의 시기를 상징한다. 이때 흑은 단순한 암흑이 아니라, 만물이 외부 활동을 멈추고 내부로 수렴되는 상태, 곧 “장(藏)”의 원리를 나타낸다. 따라서 흑색은 소멸이라기보다 잠재적 생성 이전의 응축된 상태, 즉 우주 질서의 근원적 국면을 표상한다. 둘째, 예제적 질서에서 흑색은 “현(玄)”과 더불어 최고위 권위와 연결된다. 『예기』 「옥조(玉藻)」 및 관복 규정에서는 군주가 현단(玄端)을 착용하는데, 여기서 현(玄)은 심흑(深黑)에 가까운 색으로, 가시적 화려함을 제거한 절제된 권위를 의미한다. 이는 권력이 외적 장식이 아니라 내적 덕(德)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함을 상징한다.

색할 수 있는 색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장 소박하고 검소한 색이다. 검은색(緇)은 화려함을 배제한 절제와 균형의 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옷을 자신의 조정에서 입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신분 질서 속에서 경대부로서 겸손과 절제를 표시하여 그의 인품과 잘 어울리(宜)는 현명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색에 의하여 만들어진 예제적 질서에서 흑색은 절제와 비가시성의 윤리를 구현할 수 있었다. 시인은 바로 이와 같은 흑색의 상징을 인식하고 자신의 정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사용을 한 것이다. 치의가 염색으로 만들어진 흑색의 옷이라면 천연의 검은색을 활용하여 만든 옷으로 고구(羔裘)가 있다. 그 내용으로 정풍(鄭風)의 「고구(羔裘)」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② 고구

君羔裘如濡
洵直且侯
彼其之子
舍命不渝

검은 양 갓옷이 윤택하니
진실로 털이 순하고 아름답도다
저기 저 분이여
천명에 거처하여 변절하지 않도다

羔裘豹飾
孔武有力
彼其之子
邦之司直

검은 양 갓옷에 표범 가죽으로 선을 둘렀으니
매우 굳세고 힘이 있도다
저기 저 분이여
나라의 정직함을 주관하리도다

羔裘晏兮
三英粲兮
彼其之子
邦之彥兮
〈鄭風, 羔裘〉 3장

검은 양 갓옷이 선명하고
삼영이 찬란하도다
저기 저 분이여
나라의 아름다운 선비이도다

『시경』에는 위에서 인용한 「고구」 시 이외에 같은 제목 시로 2편이 더 있다. 그 시는 진풍(秦風)의 「고구」와 회풍(檜風)의 「고구」인데 그 시구는 “검은 염소 가죽옷에 표범의 소매이다.(羔裘豹祛)”와 “염소 깃옷으로 소요(逍遙)하며 여우 깃옷으로 조회하도다.(羔裘翱翔, 狐裘在堂)”이다. 고구는 대부의 의복(大夫服)이다.³⁹⁾ 고구의 검은색은 염소의 검은 자연색이다. 치의의 검은색과는 다르다. 치의가 경대부(卿大夫)가 입는 옷이라면, 고구는 대부가 입는 옷으로 그 등급이 하나 아래인 옷이다. 여기에서 염색한 인공의 검은색이 자연의 검은색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치의는 옷 전체가 검은 색인 반면, 고구는 표범 가죽으로 선을 둘러서 단색이 아니라 혼색이다.⁴⁰⁾ 표범 가죽을 두른 것은 표범 처럼 용맹함을 비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제3장에 나오는 삼영은 세 곳을 흰색 실로 꿰매어 검은 깃옷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즉 흰색 실로 정밀하고 아름답게 깃옷을 장식하는 것이다. 흑색과 백색은 상반 색상으로 서로 상응하게 하여 대비를 통한 보색의 효과를 드러나게 한 것이다. 이런 표현은 『소남(召南)·고양(羔羊)』의 시에도 나오는데 “검은 양가죽을 흰 실로 다섯 곳을 꿰맸다.”⁴¹⁾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도 흑색과 백색의 보색 효과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시를 통하여 단색의 옷이 혼색의 옷보다 높게 평가되었음을

39) 주희(朱熹)는 본 시의 주석에서는 고구를 대부복(大夫服)이라고 하였지만, 회풍(檜風)의 「고구」 시의 주석에서 “緇衣羔裘 諸侯之朝服; 錦衣狐裘, 其朝天子之服也.”라고 하여 서로 다르다. 주대의 제도에서 대부는 천자의 대부(大夫)도 있지만 제후의 대부(大夫)도 있다. 천자를 중심으로 하면 천자-경-대부의 체계이고 제후를 중심으로 하면 제후-대부-사이다. 제후는 천자를 중심으로 하는 직제에서는 경과 같은 직급이다.

40) 옷에 선 두르는 방법은 크게 자연색의 가죽과 인공 염색의 베를 두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자연색의 가죽은 호랑이, 여우, 표범의 가죽이고 인공 염색의 베는 그 색이 다양하다. 「자금(子衿)」시에서는 옷에 푸른 선을 둘러렀다.

41) “羔羊之皮, 素絲五紕”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검은색은 왜 경사와 대부가 입는 옷의 색상이 되었고 현명하고 용감한 사람을 비유하게 되었는가이다. 이러한 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상서』의 오행에 대한 설명이다. 『상서』의 오행에 대한 설명으로 살펴보면, 그 성질이 「윤하(潤下)」인데, 비가 내려 아래로 흐르고 밑으로 내려가 어두운 구렁이 들어간다. 빠져나오려면 때를 기다리고 노력을 해야 한다. 오행의 덕으로 수는 지혜이고 공자도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이 검은색의 옷을 입는 것은 타당성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천자는 검은색 계통의 현복(玄服)을 입었다. 또한 현단(玄端)라는 복식이 있다. 이는 검은색 계열의 단정한 예복으로, 조정에서의 공식 활동이나 특정 의례에서 사용된다. 여기서 “현(玄)”이라는 색은 단순한 색상이 아니라, 깊음·근원·하늘과 연결된 의미를 지닌다. 이로 볼 때, 검은색 옷은 천자나 관직이 높은 사람이 입는 옷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역(易)의 문왕팔괘(文王八卦)이다. 이 괘의 배치에서 수는 북방의 자리에 위치하여 물을 상징하면서 사방의 중심으로 차가운 어둠을 상징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검은색이 어떤 중심과 리더의 역할을 상징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천자는 검은색의 현복(玄服)을 입었다.⁴²⁾ 옷은 대개 상의하상(上衣下裳) 구조였는데 위에는 옷(衣), 아래에는 치마 형태의 상(裳)을 입는 이분법적 구조로 천자는 상현하황(上玄下黃) 또는 상현하훈(上玄下纁)의 복식을 하였다. 이는 하늘과 땅을 몸 위에 실현하는 방식이다. 이 기본 구조 위

42) 주나라의 의복제도를 살펴보면, 면복(冕服): 천자·제후가 제사 때 입는 최고 등급 예복, 현단(玄端): 조정 의례나 공식 활동에 쓰는 정제된 예복, 심의(深衣): 상의와 하상을 연결한 일상·의례 겸용 복식, 상의하상(衣裳): 기본 구조(위는 저고리, 아래는 치마 형태), 조복(朝服): 조회 때 입는 관복, 제복(祭服): 제사 전용 복식, 상복(喪服): 상례 때 입는 복식(질·색·재질로 관계 표현), 편복(便服): 일상적인 평상복 등이다.

에 다양한 의복 유형이 없으면서 위계가 세분되었다. 이때 옷은 단순한 착용 대상이 아니라, 우주 질서를 표현하는 상징이 된 것이다. 따라서 천자와 그 아래 경대부의 옷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경사와 대부가 흑색의 치의와 고구를 입었다는데 이는 천자의 현색보다는 한 단계 낮은 색의 옷이다. 그 이유는 천자를 보필하기 때문이다.

③ 소관(素冠)

흰색과 관련이 있는 시로는 행로(行露, 召南), 겸가(蒹葭, 秦風), 소관(素冠, 檜風) 백구(白駒, 祈父), 담로(湛露, 白華), 백화(白華, 都人士), 행위(行葦, 生民) 등이 있다. 대표적인 시로 「소관」 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庶見素冠兮 棘人欒欒兮 勞心博博兮	행여나 흰 갓을 쓴 슬퍼 경황없는 사람의 수척함을 만나 보려나 마음을 수고로이 시름겹게 하노라
庶見素衣兮 我心傷悲兮 聊與子同歸兮	행여나 흰 옷 입은 사람을 만나 보려나 내 마음이 상하고 슬프니 우선 그대와 더불어 옛날 도리로 함께 돌아가리라
庶見素韞兮 我心蘊結兮 聊與子如一兮 〈檜風, 素冠〉 3장	행여나 흰 슬갑을 두른 이를 만나 보려나 내 마음에 쌓이고 맺혔으니 우선 그대와 더불어 하나같이 하리라

모전에서는 “「소관」은 3년 상을 치르지 못함을 풍자한 시이다.”⁴³⁾라

고 하였다. 주희의 『시집전』에서는 “흰 관에 흰 테를 두른 것은 이미 대상(大祥)을 지낸 관(冠)이니, 검은 날줄에 흰 씨줄이 있는 것을 호(縞)라 하고, 가장자리에 선두르는 것을 비(紕)라 한다.…관(祥冠)은 대상(大祥)이면 쓰고, 담제(禫祭)를 지내면 벗는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모두 삼년상(三年喪)을 행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하면 이 상복(喪服)을 입은 사람을 볼 수 있을까. 당시에 현자(賢者)가 행여나 이러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을까 하여 근심하고 애태움에 이른 것이다.”⁴⁴⁾라고 하였다. 등지신의 『시경독본』에서는 “이 시 또한 사람을 그리워하여 지은 시이다. 시인이 흰옷을 입은 관원을 연모함과 동시에 그와 결합하기를 원하였다.…선진 시대의 대부는 평상복으로 흰색 옷을 입었다.”⁴⁵⁾라고 하였다. 모전과 『시집전』은 소관을 상례와 관련된 상복으로 보았고 『시경독본』은 벼슬한 대부의 평상복으로 보아서 서로 다르다.

『시경』에서 흰색에 대한 인식은 해(日)-낮-밝음에서 시작되어 천상천기물과 자연경물과 동식물로 확대되었다. 흰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보면, 행로(行露, 召南), 겸가(蒹葭, 秦風), 담로(湛露, 白華)의 흰 이슬과 서리이다. 백구(白駒, 祈父)의 말의 흰색 그리고 백화(白華, 都人士), 행위(行葦, 生民)의 흰 갈대와 흰 꽃이다. 인용한 소관은 천연의 흰색으로 만든 관이다. 이 흰 관은 상복을 입을 때 쓴 관이다. 그런데 상복과 관은 왜 흰색인지가 문제이다. 이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검은색 처럼 기의 색 관념에 의한 사상과 옷의 제작과 염색 기술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흰색은 해(日)-낮-밝음의 관념에서 생긴 색상의

43) “素冠 刺不能三年也”

44) “縞冠素紕, 既祥之冠也. 既祥之冠也 黑經白緯曰縞 緣邊曰紕… 祥冠 祥則冠之 禫則除之 今人皆不能行三年之喪矣 安得見此服乎 當時賢者 庶幾見之 至於憂勞也”(『詩經集傳』, 307쪽.)

45) “此亦懷人之作. 詩人懷戀一位素衣官員, 并願與之結合…其實先秦大夫常服亦服素.”(『詩經讀本』, 388쪽)

관념이 있고 제작과 염색을 통하여 만들어진 관념이 있다. 두 가지의 흰색은 만들어진 원인에 인하여 비유와 상징은 다르다.

흰색의 관념과 비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염료 기술이다. 색은 염료와 기술의 산물이다. 쪽풀에서 얻는 청(靑), 홍화의 적(赤), 광물과 토양에서 나오는 황(黃), 그리고 숯과 먹의 흑(黑)은 각각 생산과 제조의 난이도가 다르다. 이 차이는 실제 사회에서 색의 분포를 결정하였다. 예컨대 선명한 자색이나 황색은 희소성과 비용 때문에 쉽게 얻거나 만들 수 없어서 독점물이 되었다. 반면에 염색하지 않은 흰색(백)은 가장 널리 퍼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오색의 관념 체계와 현실의 색채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것이다. 흰색은 '무염(無染)'의 색채 상태 때문에 비가 공성·절제·일상성의 표지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애도의 색을 상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서』의 오행을 참조할 수 있다. 흰색은 『상서』의 오행의 설명에 의하면, 그 성질이 종혁(從革)으로 해가 금속에 비쳐 빛나는 흰색이다. 따라서 흰색은 해와 관련이 있고 밝은색 계통의 색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정색의 방위와 오행이다. 흰색(白)은 서방으로 가을인데 가을은 수렴·단절의 기운을 지닌다. 금은 서방·가을·수렴을 뜻하며 그 색이 흰색이다. 『여씨춘추』 및 한나라 음양 가설에서는 왕조 교체를 오행의 순환으로 설명하면서, 은나라를 금덕(金德)의 왕조로 규정했다. 이때 백은 단순한 색이 아니라 수렴·결실·절단의 기운으로 이전 질서를 마감하고 새로운 질서를 준비하는 단계의 상징이다. 넷째는 제의(祭儀)의 관념이다. 은나라의 갑골문과 고고학 자료를 보면, 그들의 제사는 피와 불, 그리고 정결의 감각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여기서 백은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하나는 정결(潔)로 더러움이 제거된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과 상(喪)의 색이다. 흰색 뼈를 생각해 보면, 백색은 생명의 충만보다는 생명이

빠져나간 뒤의 모습이다. 따라서 백색은 생과 사의 경계, 충만과 수축 등의 긴장을 가시화하는 색이다.

다음으로 「소관」에서는 색의 배합을 살펴볼 수 있다. 몸에 착복한 것이 모두 흰색이다. 즉 소관(素冠)-소의(素衣)-소필(素鞵)로 온몸에 흰색으로 만든 것을 착용하였다. 통일된 흰 단색으로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색의 백합 원리는 배제되고 흰색 본연의 특색을 활용하여 시적으로 슬픔을 표현한 것이다. 상례(喪禮)에서 화려한 색을 철저히 배제하고 흰색의 미염색 포(布)를 사용하여 자신의 슬픈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소박함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색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부모상에는 가장 거친 백포를 입고, 친소 관계에 따라 점차 질감과 색의 농도가 달라졌다.⁴⁶⁾ 색이 생전의 위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실된 관계의 거리와 깊이를 가시화하는 장치로 전환된 것이다.

3. 맺는말

『시경』에는 색상을 사용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한 시구가 적지 않다. 이러한 시구의 비유가 어떤 원리에 의하여 비유적 수법으로 사용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충하는 것이기도

46) 상복의 종류는 『예기』 「상복」에 의하면, 첫째, 참취(斬衰)는 가장 거친 베로 만든 상복으로, 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의 상에 착용한다. 복상 기간도 가장 길다. 둘째, 자취(齊衰)는 참취보다 다소 정제된 베를 사용하는 상복으로, 조부모나 장자(長子) 등의 상에 적용된다. 상기는 '가지런할 제(齊)'라는 명칭은 일정한 정돈이 가해진 상태를 의미하며, 애도의 강도 역시 참취보다 한 단계 낮다. 셋째, 대공(大功)은 베의 질이 더욱 곱고, 복상 기간도 단축된다. 주로 종형제 등 비교적 가까운 방계 친족에게 적용된다. 넷째, 소공(小功)은 대공보다 더 가벼운 상복으로, 친족 관계가 한층 더 떨어진 경우에 착용된다. 다섯째, 시마(緦麻)는 가장 가는 삼베로 만든 상복으로, 복제 중 가장 경미한 단계에 해당한다. 비교적 먼 친족이나 의례적 관계에서 착용되며, 복상 기간도 짧다.

하다. 이를 위하여 『시경』 305편을 통하여 시경 시대 사람의 색 인식과 관념 그리고 사계절과 정색 및 정색과 간 색의 관계 그리고 정색과 색의 배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색상을 활용한 비유적 표현이 의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시를 선정하여 색상의 비유적 표현의 원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경』과 같은 시대에 저작된 『상서』와 『예기』의 내용 중 색상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색의 관념, 정색과 간 색, 정색과 방위 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원리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색상의 관점에서 보면 『시경』과 두 책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서로 영향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 내용을 참조하여 『시경』 총 305편과 색상과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시로 「녹의」, 「치의」, 「고구」 3편, 「소관」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경 시대 사람들은 우선 색채를 본능적으로 인식하는 색각능력(色覺能力)이 있었다. 그들은 천상과 천기 현상 및 자연 경물을 통하여 다양한 색을 인지하였다. 이러한 점은 「채동(蜩螗)」이라는 시에서 무지개를 서술했다는 점에 확인할 수 있다. 둘째는 다양한 색에서 정오색을 확립하고 정오색을 사계절과 방위에 배치한 것이다. 정색은 청(靑)·적(赤)·황(黃)·백(白)·흑(黑)인데 청을 봄과 동방, 적을 여름과 남방, 황을 여름과 가을 사이와 중앙, 백을 가을과 서방, 흑을 겨울과 북방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정오색은 다시 염색 기술을 통하여 재현되었고 더 나아가 정오색을 혼합하여 간색을 만들었다. 염색 기술이 아직 발달하기 전에는 동식물의 자연색을 활용하여 옷을 만들어 입었고 염색 기술이 발달했을 때는 포백(布帛)에 오색을 염색하여 옷을 만들어 입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천연의 흑색 가죽옷보다 베와 비단에 흑색을 염색한 인공 흑색이 더 귀하게 취급되었다는 것이다. 그 예로 치의

(緇衣)가 고구(羔裘)보다 귀하게 여겨져서 경대부와 제후가 치의를 입고 제후의 대부는 고구를 입었다. 셋째는 정오색 간의 배합과 정오 색과 간 색의 배합에 일정한 원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합은 의복의 색상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의복은 형태, 재질, 색상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의복의 형태는 상하 분리형과 상하 연결형이 있었는데, 분리될 경우는 상의하상(上衣下裳)으로 분리하였고 연결된 경우는 상하를 연결한 심의(深衣)가 있었다. 의복의 재질에는 크게 가죽과 베가 있다. 가죽에는 양, 염소, 표범, 사슴, 여우, 호랑이 등이 있었고, 베에는 비단, 삼베, 칩베, 모시 베 등이 있었다. 의복의 색상은 자연색과 인공 색이 있었다. 이러한 색상은 의복의 상하, 내외에서 여러 가지 배합을 통하여 구현되었다. 상의와 겉옷은 정오 색으로 하고 하상과 안감은 간색으로 하였다. 배합 원리는 정색 간의 상대 색을 배합하는 것이다. 본문에서 살펴본 단의는 겉옷을 검은색으로 하고 안감을 흰색으로 하였는데 바로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정색과 간 색의 배합이다. 상의(上衣)는 정색(正色), 하상(下裳)은 간색 또는 겉옷은 정색, 속옷은 간색으로 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는 정색과 잡색의 배합이 있다. 정색을 상의로 하고 상의의 소매에 잡색을 두르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녹의」, 「치의」, 3편의 「고구」에서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일한 정색을 온몸에 착용하는 것이다. 관과 의복, 각반을 모두 같은 흰색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소관」에서 엿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시경 시대에는 정색과 간색을 확립하여 상의는 정색으로 하고 하상과 안감 그리고 소매는 간색과 잡색으로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정색의 본질적 특성과 정색 간의 선명한 대비를 활용한 것이다. 이는 오호론에서 말하는 상생상극의 원리와 오늘날 말하는 보색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색을 사계절과 방위에 배치하여

색상을 통하여 계절의 변화를 인식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신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전국시대 말기의 추연과 한대 초기의 동중서에 의하여 정립된 오행론의 오정 색의 배속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시경』, 『상서』, 『예기』에는 정색과 오행을 구체적으로 배합하여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 개의 책에는 정색과 간 색, 정색과 잡색 그리고 정색과 사계절 및 방위를 연결하여 색상의 배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상기한 내용으로 ‘오색배치도’와 ‘오색계절방위도’는 그릴 수 있지만 ‘오색오행도’는 그릴 수 없다는 것이다. 시경 시대의 이러한 색상 배합을 통한 조화의 추구는 이후 시기에 나타난 남상(濫觴)이자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시경』에 보이는 색채의 조화방식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成百曉 譯註, 《詩經集傳》, 傳統文化研究會, 2006.
 成百曉 譯註, 『書經集傳』 上・下, 傳統文化研究會, 2001.
 苗楓林 主編, 『毛詩』, 山東友誼書社, 1990.
 黃焯 撰, 『毛詩鄭箋平義』, 武漢大學出版社, 2008.
 朴小東 譯主, 《毛詩正義》, 전통문화연구회, 2024.
 滕志賢 注譯, 《詩經讀本》, 上・下冊, 三民書局, 2016.
 洪湛俊, 《詩經學史》, 上・下冊, 中華書局, 2002.
 于新 著, 《詩經研究概論》, 中國社會出版社, 2010.
 戴維 著, 《詩經研究史》, 湖南教育出版社, 2001.
 朱孟庭 著, 《詩經的多元闡釋》, 文津出版社, 2012.
 《檀作文 著, 朱熹詩經學研究》, 學苑出版社, 2003.

- 鄒其昌 著, 《朱熹詩經詮釋學美學研究》, 商務印書館, 2004.
- 向熹 編, 《詩經詞典》, 四川人民出版社, 1997.
- 하위성 지음, 강초아 옮김, 『시경 속 식물』, 도서출판 선, 2025.
- 카시아 세인트 클레어 지음, 오용재 옮김, 《컬러의 말》, 월북, 2019.
- 제임스 폭스 지음, 강경이 옮김, 《컬러의 시간》, 월북, 2022.
- 陳浩 編, 정병섭 역, 『禮記集說大全』, 學古房, 2016.
- 權五惇 譯解, 『禮記』, 흥신문화사, 1991.
- 郭廉夫·郭淵 著, 『中國色彩簡史』, 重慶大學出版社, 2021.

A Study on Color in the 『Shi-jing (詩經)』

Park, Sun-Cheol^{*} & Zhang, HaoZhe^{**}

This study is an in-depth examination of the metaphors and symbolism of color as they appear in the 『Shi-jing (詩經)』. Rather than simply analyzing the surface-level metaphors and symbolism of color,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underlying principles and methods. This aspect has not been concretely analyzed or studied in prior scholarship, making it an underexplored area. The research method involves selecting and analyzing color-related content from among the 305 poems of the Shijing, with poetry related to clothing being the most frequently analyzed. In addition, contemporaneous texts — the Sanli (三禮), the Shangshu (尚書), and the Zhouyi (周易) — were referenced to provide a deeper analysis of the poems' content.

Through this research, it is found that the color-pairing principles of the Shijing predate the Yin-Yang Five Phases (陰陽五行) color-pairing principles established in the late Warring States period and early Han dynasty, thus playing a precursory role. The specific principles are as follows: first,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Five Phases (五行)-seasons-political order (位階秩序); second, the hierarchical distinction between primary colors (正色) and intermediate colors (間色); third, the correspondence between heaven and earth reflected in upper and lower garments (上衣下裳); and fourth, the shift in color according to auspiciousness or inauspiciousness (吉凶), distinguishing auspicious dress (吉服) from mourning dress (凶服) by the contrast of black

^{*} (First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E-mail: unshan@hanmail.net

^{**} (Second Author) Ph. D. Student,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E-mail: zhanghaozhe0515@163.com

and white (黑白).

Key Words

shijing, Color/Hue, Yin-Yang Five Phases, Primary Colors, Intermediate Colors, Green Garment, Black Garment, Black and White

논문접수일: 2026.05.24. 심사완료일: 2026.06.08. 게재확정일: 2026.06.24.
--

